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 2011 KBS 디지털방송 체험전

KBS는 지난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디지털방송 체험전' (이하 체험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13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풀 HD 듀얼 스트림 3DTV, 코리아뷰, 난시청해소 및 수신환경개선, 스마트TV, 스마트 모바일 등 디지털전환 이후 지상파방송의 미래를 선보였다. 이외에도 HD가상스튜디오, 특수 촬영 체험, 뉴스데스크 체험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14일 오전 11시 첫 개장을 한 체험전은 여의도 벚꽃축제와 맞물려 많은 나들이객들이 방문하여 북적거렸다. 시민들이 가장 많은 발걸음이 이어진 곳은 역시 HD가상스튜디오였다. 방송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겨주고 있었다. 드라마의 열렬 팬이신 어르신들부터 봄바람이 스치기 만해도 쏟아져 나오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10대 소녀군단, 한국에서의 멋진 추억을 남기고픈 외국인관광객들까지 아름다운 웃음꽃이 피었다. 가상스튜디오는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웃어라, 동해야', '1박2일', '개그콘서트', '드림하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배경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영화 아바타 이후 지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3DTV는 구매를 고려해야 되는 어르신들부터 재미를 추구하는 학생들까지 많은 관심을 가졌다. 스마트 모바일은 10대들에게 있기가 많았는데, 실시간 방송 이미지 공유 앱인 'TV스캐너'와 KBS의 콘텐츠를 책처럼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북스토어'가 시선을 끌었다.